

수암 권상하 문하의 심성 논쟁과 호학의 형성

김용헌*

〈차 례〉

1. 문제제기
2. 논변의 발단
3. 이간의 논변 참여
4. 한원진의 반론
5. 권상하의 논변 개입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호학(湖學)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간 학설이 어떻게 배제되어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7세기 초반 호서 지역의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문하에서는 리기심성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 논쟁은 먼저 한원진과 최징후(崔徵厚)·한홍조(韓弘祚)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나 이간(李柬)이 한원진(韓元震)의 견해를 비판함으로써 논쟁의 구도가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논쟁의 쟁점도 점차 미발론과 인물성동이론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논쟁 과정에서 번곡점이 된 것은 그들의 스승인 권상하의 개입이다. 권상하는 미발론과 인물성론 모두에서 한원진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심지어 이간에게는 “한원진이 미발일 때 선약의 종자가 있다고 말한 것이 무슨 병통이 있기에 그처럼 꾸짖는가?”라고 하여, 그의 한원진 비판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후 호서 지역에서는 이간과 현상벽(玄尙璧) 등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인물성이론과 미발기질유선약론으로 기울어져 갔다. 이에 대해 이간은 “선생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오면 사방의 학자들이 그것을 확정된 이론으로 여긴다.”면서 경직된 학문 풍토를 비판했으나, 한원진의 견해가 수암 문하의 주류 학설, 즉 호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대세를 막기에

* 한양대학교

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초반을 넘어서면서 심성 논쟁의 전선이 자연스럽게 호서의 학자들과 낙하의 학자들 사이에 형성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호락논쟁이다.

[주제어] 호학, 호락논쟁, 수암 문하, 권상하, 한원진, 이간

1. 문제제기

18세기 초반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하에서 벌어진 심성 논쟁은 곧이어 낙하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계되면서 이른바 호락논쟁(湖洛論爭)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그 논쟁의 핵심 주제인 미발선악(未發善惡)의 문제와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의 문제는 그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 유학자들의 중요한 이론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수암 권상하 문하의 심성 논쟁은 조선유학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물론 호서의 학자들과 낙하의 학자들 사이에 전개된 호락논쟁의 기원을 단순히 수암 문하의 논쟁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율곡학과, 더 나아가 조선 유학계 내부에 이미 그 논쟁을 촉발할 만한 학문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암 문하의 논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수암 문하의 논쟁이 본격화되기 30여 년 전인 1678년에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인물성동이의 문제를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질의했을 뿐만 아니라¹⁾ 권상유(權尙游, 1656~1724)도 동일한 문제를 박세채(朴世采, 1631~1695)에게 질의함으로써 박세채와 권상하의 견해를 이끌어낸 것²⁾이 그 근거이다. 게다가 퇴계학과에서도 이현일(李玄逸, 1627~1704) 형제들이 인물성동이의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고, 그와 별개로 정시한(丁時翰, 1625~1707)과 그의 문인 이식(李栻, 1659~1729)도 동일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인물성동이 문제만큼은 17세기 후반 이래로 조선유학계가 해결해야 할 이론적 과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한원진과 이간을 필두로 한 수암 문하의 논쟁이 주목받는 것은 그 논쟁이 곧바로 호학(湖學)과 낙학(洛學) 사이의 논쟁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그

1) 『農巖集』 권12, 「上尤齋中庸疑義問目」, 18b~19a.

2) 『寒水齋集』 권21, 「太極圖說示舍弟李文兼示玄石」, 1a~6a.

논쟁의 주요 쟁점인 인물성동이 문제와 미발선악의 문제가 고스란히 호락논쟁의 2대 쟁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³⁾

대체로 낙학(洛學)이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미발심체순선론(未發心體純善論)을 견지했고 호학(湖學)이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과 미발기질유선악론(未發氣質有善惡論)을 주장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처음부터 호서의 학자들이 통일된 견해를 가졌던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는 낙하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틀테면 낙학의 중장으로 평가받는 김창협이 젊은 시절에 제기한 인물성이론은 그 이후 동론을 정론으로 삼은 낙하 학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론적 난제였으며, 이현익(李顯益, 1678~1717)도 인물성이론을 주장함으로써 김창협(金昌翕, 1653~1722)이나 어유봉(魚有鳳 1672~1744)과 논쟁을 벌였다. 수암 문하에서는 1708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최징후(崔徵厚, ?~1715), 한홍조(韓弘祚, 1682~1712), 채지홍蔡之洪(1683~1741), 송상윤(宋相允, 1674~1767), 윤훈(尹焜, 1676~1725), 이간(李柬, 1677~1727), 윤봉구(尹鳳九, 1683~1767), 우세일(禹世一, 1670~1722), 현상벽(玄尙璧), 한계진(韓啓進) 등이 직간접적으로 논쟁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스승이자 송시열의 적진인 권상하가 논쟁에 개입하면서, 이간과 현상벽 등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한원진의 인물성이론과 미발기질유선악론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 결과 인물성이론과 미발기질유선악론이 수암 문하의 주류 학설로 자리 잡게 되고, 논쟁의 진전이 자연스럽게 호서의 학자들과 낙하의 학자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호락논쟁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호락논쟁의 전개 과정과 내용 분석은 물론 논쟁의 철학적

3) 『南塘集』 권28, 『李公舉上師門書辨』, 41b, “先生之說不同於公舉者, 其大目有二, 曰未發氣質之性有無之辨也, 曰人物五常之性同異之辨也.”; 『梅山集』 권34, 『巍巖李先生神道碑銘』, 1b. “其辨物不具五性, 則曰理通氣局, 栗谷之說, 而原不相離, 乃其頭腦語, 則雖曰氣局, 理未嘗不通. … 其辨未發有善惡, 則曰未發之體, 當論於本體之未未嘗息者, 不當論於所拘所蔽有時而昏者.”; 훗날 홍직필(洪直弼)은 호락논쟁의 논점을 이 두 가지에다 명덕 분수의 문제를 추가하여 3가지로 파악했는데, 명덕의 문제는 미발의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이간과 한원진의 논쟁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梅山集』 권13, 『與李龜巖』, 4a. 『梅山集』 권13, 『與李龜巖』, 4a. “近世湖洛諸儒之辨, 條件糾紛, 而其大綱有三, 人物性曰同曰異, 心體曰本善曰有善惡, 明德曰有分數曰無分數.”) 한편 황윤석(黃胤錫)은 인물성의 문제를 편전의 문제와 오상의 문제로 분리해 호락논쟁의 쟁점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願齋亂藁』(제 5책) 권26, 무술년 7월 27일, 『記湖洛二學始末』, 236쪽. “其於心體之非氣質, 性之偏全之非本然, 與夫聖凡明德之本同, 人物五性之不殊者, 豈不鑿鑿有徵乎?”

함이나 정치사상적 의미 등과 관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⁴⁾ 다만 당시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벌인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들의 미세한 관계 및 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권상하 문하에서 심성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학설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호학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논변의 발단

1) 논변의 발단과 한원진의 참여

(1) 한원진 · 최징후 · 한홍조의 만남과 논변의 시작

수암 권상하(權尙夏, 1641~1721) 문하의 리기심성 논쟁이 본격화 된 것은 1708(무자)년 무렵이지만 1705(을유)년 1월에 있었던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최징후(崔徵厚, ?~1715)의 만남이 그 논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해 1월 한원진이 오서산 정암사(淨巖寺)에 머물고 있을 때 최징후가 찾아와 하루 동안 머물면서 경전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그 계기인데,⁵⁾ 이 날의 대화 내용은 그 해 6월에 한원진이 최징후에게 보낸 답장⁶⁾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한원진은 『대학』의 청송장(聽訟章)과 정심장(正心章), 『맹자』의 호연지기, 그리고 자연현상인 조수(潮水)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했을 뿐,⁷⁾ 인물

4) 관련 박사학위 논문만 해도 다수가 있다. 이애희,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에 대한 논쟁의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문석운, 『조선 후기 호락논변의 성립사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전인식, 『이간과 한원진의 미발·오상 논변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홍정근, 『호락논쟁에 관한 임성주의 비판적 지양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5) 『南塘集』 권8, 『附書答崔成仲書後』, 9ab. “乙酉春, 余在烏山讀書. 洪陽崔成仲前未相識, 成仲聞余之在山, 既以書先之, 而又來訪留一日講討, 所見固多相契, 而其不合者, 亦多焉.”; 『南塘先生年譜』 권1, 4b~5a.

6) 그 날의 만남 이후에 최징후가 편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오자, 한원진이 답장을 썼다. 『南塘集』 권8, 『附書答崔成仲書後』, 9b. “成仲既歸, 復以書來辨, 而余答之如上矣.”

7) 『南塘集』 권8, 『答崔成仲別紙』, 1a.

성동이의 문제나 미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을유년에 있었던 한원진과 최징후의 토론이 수암 문하의 리기심성(理氣心性) 논쟁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 해인 1706년 봄에는 한원진이 한홍조(韓弘祚, 1682~1712)와 함께 암촌(巖村)으로 최징후를 방문해 토론을 벌였다. 한홍조가 합류하면서 토론 주제도 경전 해석의 문제를 넘어 리기심성론(理氣心性論)으로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원진과 최징후·한홍조 사이의 심성 논쟁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1708년(무자) 8월에 와서이다. 이 때 한원진은 최징후에게 안부의 편지와 함께 보낸 「별지(別紙)」에서 최징후·한홍조의 리기심성론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판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미발(未發)의 문제이고 네 번째 항목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08년 8월경에 수암 문하에서 리기심성론의 여러 주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논의에 호락논쟁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⁸⁾ 수암 문하의 리기심성 논쟁에서 한원진의 1708년 8월의 편지와 별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08년 8월에 한원진이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 즉 「여최성중(與崔成仲)」⁹⁾을 쓴 것은 햇수로 4년 전인 1705년(을유)에 최징후와 벌인 논변에서 자신의 견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계기였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제가 이 주장을 제시하여 그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을유년이니, 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이제서 겨우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라면서, 1705년(을유)의 견해를 간략하게 수정하였다.¹⁰⁾ 이러한 상황은 그가 10월에 쓴 「부서답최성중서후(附書答崔成仲書後)」에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후에 생각하니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급히 최징후의 거처에서 원서를 취하여 살펴보니 착오가 과연 한둘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¹¹⁾ 그 무렵 한원진은

8) 『南塘集』 권8, 「與崔成仲」, 11b; 『南塘集』 권9, 「與崔成仲別紙」, 1a.

9) 성중(成仲)은 최징후의 자이다.

10) 『南塘集』 권8, 「與崔成仲」, 12a. “愚之發此論, 而辱高明之教, 乃在乙酉, 今去乙酉, 已四年矣. 四年之間, 日月非不多矣, 而今纔覺其有非.”

11) 『南塘集』 권8, 「附書答崔成仲書後」, 9b. “後來思之, 覺其有非, 亟於成仲處, 取其原書而考之, 則所差果非一二, 今悉追正.”

1705년 6월에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설한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최징후에게 그 편지를 찾아서 확인한 후 수정설을 8월의 편지(『여최성중』)로 보냈던 것이다. 실제로 8월의 『여최성중』 및 10월의 『부서답최성중서후』를 보면, 을유년의 쟁점이었던 『청송장』·『정심장』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인정할 것이 주된 내용일 뿐, 그 이외의 쟁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그 편지에 첨부된 『별지』에서 인물성론과 미발론을 포함해 리기심성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게 논하였다. 그가 이 시점에서 『별지』를 통해 새로운 주제들을 논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의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에 “전일에 기록해 가지고 온, 그대와 한홍조가 논한 의의(疑義)와 형기(形氣)의 설에 대해서는 별폭으로 아뢰입니다.”¹²⁾라는 한 대목에서 풀린다. 이 대목과 『부서답최성중서후』에서 “최징후의 거처에서 원서를 취하여 살펴보니”라고 한 구절¹³⁾을 함께 살펴보면, 한원진은 최징후를 찾아가 자신이 1705년 6월에 보낸 편지의 원본을 구할 때 최징후와 한홍조의 토론을 정리한 자료를 접하고는 그것을 베껴왔고, 그것을 검토한 후 자신의 견해를 『별지』에 담았던 것이다.¹⁴⁾ 한마디로 한원진의 『여최성중 별지』는 1705년의 쟁점 이외에 최징후와 한홍조가 리기심성론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문을 포괄적으로 논한 글이다.¹⁵⁾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징후와 한홍조가 리기심성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그것을 확인한 한원진이 1708년 8월에 『여최성중 별지』를 통해 그 논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징후와 한홍조가 리기심성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2) 한원진의 초기 글

리기심성에 대한 한원진의 초기 견해는 그가 24세 때(1705) 쓴 『시동지설(示同志

12) 『南塘集』 권8, 『與崔成仲』, 12b. “前日錄歸, 執事與永叔宗兄所論疑義及形氣之說, 別幅以稟.”

13) 『南塘集』 권8, 『附書答崔成仲書後』, 9b. “後來思之, 覺其有非, 亟於成仲處, 取其原書而考之, …”

14) 한원진이 본 최징후와 한홍조의 토론 자료는 최징후가 정리한 것이다. 이는 “최징후가 쓴 자료에 본래 ‘기(氣)’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기’ 자로 상정하고 논변했다”는 한원진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南塘集』 권12, 『答韓永叔 弘祚 己丑正月』, 29b~30a. “仁義禮智無分之說, 兄既以金木之氣爲非一氣, 則庶有歸一之望矣.(錄歸此段, 乃成仲手筆, 本作氣字, 故前書仍作氣字, 非愚誤寫也.)”

15) 이는 한원진이 그 이듬해(1709) 3월에 이간의 반박을 재 반박한 『답최성중』에서 성에 인의예지가 있는 것을 사시의 순환에 비유한 것과 금·목이 하나의 기이나 발함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는 것을 한홍조의 견해라고 밝힌 것에서 확인된다. 『南塘集』 권9, 『與崔成仲』, 16b.

說)』에 집약되어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이(李珥, 1536~1584)의 기발일도설(氣發一道說)에 기초해서 이황(李滉, 1501~1570)의 리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¹⁶⁾ 이후 수암 문하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들이 쟁점화 되지는 않았다. 이후 한원진은 1706년 12월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썼다. 이 글은 인심도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발의 문제와 본연(本然)·기질지성(氣質之性)의 문제를 다루는 등 한원진의 심성론을 엿볼 수 있는 글이지만, 이간의 견해와 뚜렷하게 대립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원진이 이 글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학자는 중국의 황간(黃幹)·허겸(許謙)·호병문(胡炳文)을 비롯해 이황·성혼·박세채 등인데, 이들은 인심과 도심을 둘로 나눈 탓에 결과적으로 리기호발설을 신봉했다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이다.¹⁷⁾ 한편 율곡학파의 종장인 이이에 대해서는 그의 기발일도설을 영원히 깨지지 않을 진리로 추켜세우면서도¹⁸⁾ 형기 두 글자를 깊이 통찰하지 못해 인심과 도심을 둘로 보는 혐의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¹⁹⁾ 이는 이후 수암 문하에서 전개될 논쟁의 쟁점이 이때까지만 해도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암 문하의 심성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원진의 글은 그가 1707년(정해) 가을에 쓴 『본연지성기질지성설本然之性氣質之性說』이다.²⁰⁾ 이 글은 “지금의 학자 중에는”,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데서 확인되듯이 당시 주변 학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는 점에서 이후 전개될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 글에서 지금의 학자라고 지적하면서 비판 대상으로 상정한 학자들의 심성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도심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고 인심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다.²¹⁾ 둘째, 본연지성은 체(體)와 용(用)이 다 있지만 기질지성은 용만 있고 체가 없다.²²⁾ 셋째,

16) 『南塘集』 권29, 『示同志說』, 34b~35a.

17) 『南塘集』 권30, 『人心道心說』, 1a~7a.

18) 그는 이이의 기발일도설을 맹자의 성선설, 주돈이의 태극설과 같은 반열에 놓았다. 『南塘集』 권30, 『人心道心說』, 5b~6a.

19) 『南塘集』 권30, 『人心道心說』, 6ab.

20) 『南塘集』 권30, 『本然之性氣質之性說』, 7a~10b.

21) 『南塘集』 권30, 『本然之性氣質之性說』, 8a. “今之學者, 有以道心爲本然之性所發, 人心爲氣質之性所發.”

22) 『南塘集』 권30, 『本然之性氣質之性說』, 8b. “又以爲本然之性, 體用俱備, 氣質之性, 有用無體, 此言尤害理.”

미발일 때는 단지 본연지성만 있으며 본연의 성이 이목구비에 말미암아 발한 것이 기질의 성이다.²³⁾ 이 세 가지 문제는 별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동일한 주제에서 파생된 가지들로서 호락논쟁의 두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발설과 바로 직결된다.

한원진이 『본연지성기질지성설』에서 비판한 심성설은 누구의 것일까? 이 글을 쓴 지 1년쯤 지난 1708년(무자) 8월에 한원진은 『여최성중 별지』의 첫 번째 항목에서 최징후와 한홍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발하기 전에는 단지 본연지성만 있어 기질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발에 이르러 바야흐로 기질지성이 있다. 도심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다. 인심은 본연지성이 이목구비에 말미암아서 발한 것이니 이른바 기질지성이다.²⁴⁾

위 인용문에는 채용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 ‘기질지성에는 체가 없고 용만 있다’는 것은 미발에는 기질지성이 없고 이발(已發)에만 기질지성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원진은 위에 제시된 『여최성중 별지』의 첫째 항목을 반박하면서, 체 없이 용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미발일 때 기질지성이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다.²⁵⁾ 그렇다면 한원진이 『본연지성기질지성설』을 통해 비판한 심성설은 『여최성중 별지』의 첫 번째 항목에 제시된 설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한원진이 『본연지성기질지성설』에서 비판한 지금의 학자가 최징후·한홍조 내지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임이 분명하다.²⁶⁾ 늦어도 1707년 가을에 수암 문하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발설을 비롯해 심성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원진의 『본

23) 『南塘集』 권30, 『本然之性氣質之性說』, 8b. “其所以爲是說者曰, 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而不可謂有氣質之性, 及其發也, 方有氣質之性, 而本然之發, 由於耳目口鼻者, 乃所謂氣質之性也.”

24) 『南塘集』 권9, 『與崔成仲別紙』, 1a. “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不可謂有氣質之性, 及其發也, 方有氣質之性. 道心即本然之性所發也, 人心即本性之由於耳目口鼻而發, 所謂氣質之性也.”

25) 『南塘集』 권9, 『與崔成仲別紙』, 1b. “安得謂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而已發後, 方有氣質之性乎? 蓋聞未發謂之性, 未聞以已發爲性也. 聞性發爲情, 而未聞性發又爲性也. 聞有體而後有用, 未聞無體而能有用也.”

26) 전인식은 1706년에 한원진, 최징후, 한홍조가 만나 토론했을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본연지성기질지성』으로 정리했고, 이 글을 읽은 최징후가 자신의 견해를 담은 편지를 한원진에게 보냈으며, 또 다시 한원진은 1708년 8월에 최징후의 견해를 논박했다고 추론하였다.(전인식, 『이간과 한원진의 미발·오상 논변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72쪽.)

연지성기질지성설」은 이미 논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문제를 미발·이발, 인심·도심과 관련하여 논한 「본연지성기질지성설」은 미발의 문제를 구체화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수암 문하의 심성 논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글이라는 의미가 있다.²⁷⁾

(3) 논변의 확산

한원진이 이십대 초반에 쓴 세 편의 글은 수암 문하의 동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가운데 「시동지설」은 동문들에게 보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했고, 「본연지성기질지성」의 비판적인 언사는 당시 학자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최징후와 한홍조가 논한 의의(疑義)와 형기의 설도 한원진의 글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⁸⁾ 1708년 8월에 한원진이 그것을 검토한 후 곧바로 최징후에게 반박하는 글을 보낸 것도 그들의 논의가 한원진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뒤에서 살펴겠지만, 최징후와 한홍조 사이에 있었던 의견 교환이 전적으로 한원진의 글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한원진의 「여취성중 별지」는 수암 문하의 심성설 논쟁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수암 문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중요한 논쟁 당사자인 이간 역시 이 글을 읽고 본격적으로 논쟁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홍조는 이 글을 보고 그 해 가을 한원진에게 반박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본 한원진은 그 다음 해인 1709년 1월에 재반박하는 답장을 보냈다.²⁹⁾ 한원진의 답장은 매우 긴 편인데,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와 미발일

27) 한원진은 이 글에서 미발일 때도 기질지성이 있다는 것과 기질지성에는 선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논쟁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것으로, 단지·겸지에 의한 본연·기질지성의 구분과 성발위정이라는 주자학 이론의 기본 정식에 충실한 견해이다. 성이 발하면 정이 되므로 성은 미발의 때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겸한 것이므로 기에 따라 선악이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시동지설」에 이미 표명되었던 것이므로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시동지설」이 이황의 학설을 겨냥한 것이라면, 「본연지성기질지성설」은 수암 문하의 동료들의 견해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8) 『南塘集』 권8, 「與崔成仲」, 12b. “前日錄歸, 執事與永叔宗兄所論疑義及形氣之說, 別幅以稟.” 다만 한원진의 「본연지성기질지성」을 직접 거명하며 논한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29) 답장이 늦어진 것은 1708년 가을에 보낸 한홍조의 편지가 그 이듬해 1월 4일이 되어서야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南塘集』 권12, 「答韓永叔」, 25b. “伏惟新元, 道履膺慶, 攢賀無已. 前秋所賜書, 今月四日始得拜領.”

때 인의예지의 분리[分]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³⁰⁾

한편 한원진은 이 무렵(1708년 8월)에 권상하와 우세일(禹世一, 1670~1722)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이때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 즉 「상사문(上師門)」에서 한원진은 성삼층설(性三層說)을 상세하게 논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징후와 한홍조 등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요점은 그들이 삼층의 성 가운데 아래 두 층의 성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설을 주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초형기(超形氣)의 관점에서 만물의 성을 바라보는 인물성동론자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 한원진이 최징후와 한홍조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비판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인물성동론을 견지한 학자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한원진이 파악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는 다음 세 가지이다. 하나의 리가 목(木)의 기를 따라 발하면 인(仁)이 되고 금(金)의 기를 따라 발하면 의(義)가 된다고 여긴 것, 금수도 오상의 성을 다 품부 받아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 것, 그리고 미발일 때는 본연지성만 있고 발했을 때 기질지성이 있다고 여겨 인심을 기질의 성에 배당한 것이 그것이다.³²⁾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것은 한원진이 쓴 「본연지성기질지성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앞의 두 가지는 그 글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본연지성기질지성」이 이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한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원진이 같은 달에 쓴 「여최성중 별지」와 비교하면, 「상사문」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상정한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은 「여최성중 별지」의 1항, 3항, 4항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별지」에는 성삼층설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한원진은 그 해 8월과 9월 연속해서 우세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8월의 편지는 그 둘이 하룻밤 동안 토론을 한 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쟁점, 즉 ‘충막무짐, 만상삼연(冲漠無朕, 萬象森然)’에 대해 논한 것이며,³³⁾ 9월의 편지는 우세일이

30) 이 답장에는 한홍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한계진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南塘集』 권12, 「答韓永叔」, 30b~31a. “舍弟以爲兄見之差, 專在一隨字上.”

31) 『南塘集』 권7, 「上師門」, 3b. “崔徵厚韓弘祚諸人, 於前一層之說, 不可謂無見, 而於後二層之說, 似未有見, 故其言多窒.”

32) 『南塘集』 권7, 「上師門」, 3b. “其論仁義禮智, 則以爲隨木氣而發則爲仁, 隨金氣而發則爲義, 發爲仁發爲義之說, 殊甚恠駭. 論人物之性, 則以爲禽獸亦稟得盡五常之性, 而與人初無異, 論氣質之性, 則以爲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而及其發也, 方有氣質之性, 以人心當氣質之性, 此皆未安.”

33) 『南塘集』 권12, 「與禹執卿」, 1ab. “一宵蒙誨, 開發多矣. 歸來慰滿, 如得百朋之錫. … 惟是冲漠無朕一段, 未能卽合, 此尤可見不苟同之美, 而亦豈無同歸之日也.”

반박 편지를 보내오자 한원진이 재반박한 것이다.³⁴⁾ 첫 번째 편지에서 한원진은 하룻밤 토론 과정에서 우세일로부터 형기의 설을 비롯해 여러 설에 동의를 받았다고 만족해하면서도, 이견을 보인 ‘충막무집, 만상삼연’에 대한 견해만큼은 우세일·최징후·한홍조가 같은 견해를 지녔다고 비판하였다.³⁵⁾ 이상을 종합하면, 1708년 8월 무렵에 ‘충막무집, 만상삼연’을 제외한 심성 논쟁에서 한원진·한계진·우세일과 최징후·한홍조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³⁶⁾

3. 이간의 논변 참여

1) 이간의 한홍조 비판

이간이 심성논쟁에 개입한 것은 1708년에 송상윤(宋相允, 1674~1767)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이다.³⁷⁾ 이 편지는 송상윤의 편지를 받고 답한 것으로서 본연·기질지성을 미발·이발과 관련하여 논한 것이 주 내용이다. 아마도 송상윤이 본연·기질지성을 미발·이발과 관련해 설명하는 방식을 두고 윤훈(尹焜, 1676~1725)과 한홍조의 견해에 의문을 가졌고, 이에 대해 이간(李東, 1677~1727)의 생각을 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송상윤은 품수(稟受)와 저재(貯在)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고, 물[水]의 처음 상태[所自來]를 본연지성으로, 물이 그릇에 담겨있는 것을 기질지성으로 파악하였다.³⁸⁾ 요컨대 사람이 태어나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은 기질지성일

34) 한원진은 두 사람 사이의 쟁점을 9월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南塘集』 권12, 『答禹執卿』, 9a. “今日所爭, 只在於萬象森然一句所解之不同. 老兄則以爲靜則只可謂萬象森然, 而不復得爲一物之理, 動則只得爲一物之理, 而不可復見萬象森然之妙. 元震則以爲兼言氣, 則動靜皆只爲一物之理, 專言理則動靜上, 皆可見萬象森然之妙.”

35) 『南塘集』 권12, 『與禹執卿』, 2ab. “老兄與成仲永叔之見, 蓋皆以萬象森然, 爲靜時事, 故亦連沖漠無朕, 而爲靜時氣象也. 然今以程子立言之本指推之, 則其說沖漠固偏矣, 而其認得萬象森然, 亦恐錯矣.”

36) 한원진은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세일도 최징후와 한홍조의 설이 잘못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南塘集』 권7, 『上師門』, 3b. “禹執卿, 亦以彼說爲非.”

37)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6b~39a. 이 편지는 “미발일 때 기질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순선하고, 따라서 기질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간의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최초의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8)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8ab. “來論, 以稟受與貯在, 分說本然與氣質. 稟受是何物, 貯在是何物, 而其有異義耶? 以水之所自來, 爲本然之性, 以在盤盂者, 爲氣質之性, 若爾則人物所受, 只是氣質之性,

뿐이므로 미발일 때 기질지성 이외에 본연지성을 말할 수 없고, 이발일 때는 성이 아니라 정이라는 것이 송상윤의 주장이다. 이는 미발일 때도 청탁(淸濁)·수박(粹駁)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원진의 미발설에 가까우며 이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였다.³⁹⁾

반면에 윤희과 한홍조는 송상윤과의 논의 과정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각각 미발의 체(體)와 이발의 용(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간은 “그 말이 과연 상세하지 않은 듯하다”고 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도⁴⁰⁾ “두 벗의 말이 애초에 이와 같지 않았다. 이는 혹시 말뜻에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있어서인 듯하다”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⁴¹⁾ 그들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각각 체와 용으로 한정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미발과 이발로 나눈 것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⁴²⁾ 이간의 생각을 정리하면, 첫째 미발일 때는 기가 작용하지 않아 맑고 순수한 선(善)이므로 작용하지 않는 기를 겸하여 기질지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⁴³⁾ 둘째, 이발 후에는 당연히 단지(單指)와 겸지(兼指)의 구별이 있어야 완벽하지만 그럼에도 오성(五性)이 감동하여 선악이 나뉘는 데 이른 후에야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며, 윤희와 한홍조가 말한 기질지성은 대체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윤희와 한홍조의 말이 근거가 있으므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간의 결론인 셈이다.⁴⁴⁾

而所謂本然之性，則當於天道之流行處言之，而不當就人身上言之乎？理恐不如是矣。”

39)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8b~39a.

40)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6b~37a. “晦永二友，眞以本然之性，只作未發之體，以氣質之性，只作已發之用，則其言果似乎未詳矣.”

41)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7a. “向所謂大本達道，俱是天命之本然，則今何可言乎其體也？其有大本而行達道，與不能有而不能行者，俱未離乎氣質，則亦何可偏言乎其用也？二友之言，初不如此。此或語意之間，有未相悉者耶.”

42) 이간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윤희와 한홍조의 견해는 첫째, 미발일 때는 기가 작용하지 않고 순수한 선이므로 기를 겸하여 말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이발 이후에 선악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43)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7ab. “蓋人生而靜，一性渾然，雖有清濁粹駁之不齊者，而此時未嘗用事，則眞所謂無情意，無造作，澹然純一，善而已矣。故其理亦純善，非氣或有未純於善而理獨純於善者也。此正大本之未發處，而自古言本然之性者，多從此說下來，所謂有恒之性，天命之性，皆善之性之類是已。二友之言，本然者其亦此意。而其言氣質之性於已發者，則又有說焉。所謂未發之大本，固非人人之所可言者，而氣果有不用事時，則實亦純是本然之理而已，何必兼指其不用事之氣而爲言乎？”

44)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7b~38a. “蓋已發之後，若無單指兼指之別，則誠有不備不明之患矣。至於未發之時，則雖不兼指其氣，有何所歉乎？…此果有二性，而一言一不言，則誠爲不備矣。至於五性感動，善惡分然後，向所謂不齊之用，於是乎見焉。而自古言氣質之性者，亦多從此裏說着，所謂相近之性，習成之性，善惡之性之類是已。其言固自有據，何可全然非之也？”

이어서 이간은 혹자의 말을 반박했는데, 혹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⁴⁵⁾ 미발일 때 청탁수박의 기가 존재하므로 청탁수박의 리가 존재하며, 따라서 미발일 때 선악의 짝을 말할 수 있다는 혹자의 견해는 한원진의 생각과 유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확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⁴⁶⁾ 마지막으로 이간은 자신의 편지를 채지홍(蔡之洪, 1683~1741)에게 보여주고 그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⁴⁷⁾ 이상을 종합할 때 1708년경에 이간은 심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암 문하의 송상윤·윤훈·한홍조, 나아가 채지홍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교환했고, 그 가운데 윤훈·한홍조와 미발설을 두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간의 한원진 비판

이간은 그 다음 해인 1709년 초에 최징후에게 편지(『여최성중』)와 『별지』를 보냈다.⁴⁸⁾ 그는 이 편지에서 한원진이 1708년 8월에 최징후에게 보낸 『별지』⁴⁹⁾를 한홍조를 통해 보았다는 것과 한홍조가 한원진에게 쓴 답장⁵⁰⁾이 있었으나 미처 읽기 전에 그가 가져갔다는 것을 밝히고, 최징후가 한원진에게 보낸 답장이 있을 텐데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다.⁵¹⁾ 이간이 한원진의 『여최성중 별지』(1708)를 보기 전에는 한원진과 최징후·한홍조 사이에 있었던 심성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⁵²⁾ 아무튼 이간은 한원진의 『별지』를 읽고 그 『별지』에 담겨있는 한원진과 최징후·한홍조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간이 한원진의 『별지』에 수록된 8항목을 검토하면서 명확하게 한원진의 견해를

45)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8a. “或者曰, 其未發也, 清濁粹駁之氣自在, 則獨無清濁粹駁之理乎? … 余曰, 思之至此, 亦自不易矣. 但所謂不用事三字, 則全未勘破, 於此勘破, 則自無閑爭競矣.”

46)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8a. “或者曰, 其未發也, 清濁粹駁之氣自在, 則獨無清濁粹駁之理乎, 而其清粹之理, 則固謂之善矣, 其濁駁之理, 亦謂之善乎? 此似爲氣質之性之體, 而其善惡之苗脈, 此時分明有可言者矣.”

47) 『巍巖遺稿』 권8, 『與宋信甫』, 39a. “蔡君範此尙未接識, 幸以此紙轉報, 回教其可否, 如何如何?”

48)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1a.

49) 한원진의 『여최성중 별지』(무자 8월)을 말한다.

50) 한홍조가 이 답장을 쓴 것은 무자년 가을인데, 한원진이 받은 것은 기축년 1월 4일이다. 『南塘集』 권12, 『答韓永叔』, 25b. “伏惟新元, 道履膺慶, 攢賀無已. 前秋所賜書, 今月四日始得拜領.”

51)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1a. “頃因永叔, 得見韓德昭抵老兄別紙, 而永友所答, 則未及一見, 渠却袖去, 殊鬱. 想兄有所答書, 切望此便惠示也.”

52)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1a. “因此別紙, 得承僉兄緒餘, 孤陋之幸, 大矣.”

비판한 것이 4항목이고 동의한 것이 2항목이다. 반면에 최징후의 견해에 대해서는 3항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심성 논쟁과 관련해서 보자면,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와 인물성동이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한원진을 비판하였다.⁵³⁾ 더욱이 한원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 편지⁵⁴⁾는 이간과 한원진의 논쟁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최징후를 통해 이 편지의 「별지」를 본 한원진이 곧바로 이간의 견해를 반박하는 편지를 최징후에게 보냈다.⁵⁵⁾ 1709년 3월의 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간과 한원진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적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최징후나 한홍조를 매개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다.⁵⁶⁾

이간이 「여최성중」(1709)에서 한원진의 견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살펴보면, 한원진의 견해에 동의한 것이 다섯 째 항목과 여섯 째 항목⁵⁷⁾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심성 논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여섯 째 항목이다. 이 항목은 최징후가 “허령불매(虛靈不昧)는 거울의 밝음과 같고 기품(氣稟)의 구속은 먼지가 어둡게 가리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을 한원진이 거울도 그 재질에 따라 밝음의 정도가 다르듯이 허령불매도 기품에 따라 다르며, 거울의 먼지는 물욕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이간은 한원진의 말이 매우 정밀하다고 평가하였다.⁵⁸⁾ 허령불매 문제는 심성론의 핵심 주제인 만큼 이간이 한원진의 견해에 동의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간이 한원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미발의 문제, 충막무짐의 문제,⁵⁹⁾ 인의예지 형성의 문제,⁶⁰⁾ 인물성동이의 문제 4가지이다. 이 중에서 미발의 문제와 인물성동이의 문제가 훗날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첫째, 미발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이다. 본래 최징후는 “미발의 전에는 단지 본연지성만 있어 기질지성이

53) 이간이 한원진과 심각한 견해 차이를 호연지기의 문제 이외에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와 일리와 인의예지의 관계 문제를 꼽았다.

54) 이 편지는 『외암유고』에 「與崔成仲」으로 되어 있으나 한원진은 이간의 「별지」라고 칭하였다. 『南塘集』 권9, 「答崔成仲 己丑三月」, 10b. “李公舉別紙, 深荷轉示.”

55)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0b.

56)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4b. “束於德昭, 未及相識, 而竊聽於士友, 蓋吾黨中倚仗之人也. 尋常傾嚮, 有既見之願矣.”

57) 이간은 제7단이라 하였다.

58)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3b~4a.

59)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2a. “冲漠無昧, 可通動靜言者, 東實愚蒙, 未之前聞.”

60)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3a. “當仁之發也, 義禮智三者, 各保其間架, 不隨而發, 則當春之時, 夏秋冬三氣, 果亦各保間架於何處云耶? 於此說破, 則自無閒說話矣.”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발에 이르러 바야흐로 기질지성이 있다”⁶¹⁾고 하였다. 한 마디로 미발일 때 기질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한원진은 “미발일 때도 기질은 있고 그 기질을 겸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⁶²⁾ 인간은 이 두 견해를 보고, 미발일 때 기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그 기를 겸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타고난 기는 청탁수박의 다음이 있지만 미발일 때 그 기는 작용하지 않고, 따라서 정의도 없고 조작도 없이 담연하고 순일하고 선할 뿐이다. 따라서 한원진처럼 미발일 때 본연지성 이외에 기질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두 성이 있는 것이 되어 옳지 못하다.⁶³⁾

두 번째 인물성동이의 문제이다. 먼저 최징후가 “금수는 오상의 성을 다 타고났으나, 기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할 수 없을 뿐이다”⁶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성은 리가 기 안에 떨어진 후에 붙인 이름이므로 금수와 사람이 어찌 똑같이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품수할 때 이미 기에 구속되어 전체를 품수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미 (전체를) 품수한 후에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⁶⁵⁾ 한편 한원진의 반박을 접한 인간은 그의 견해가 옳지 않다면서, “무릇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음양과 오행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초목보다 더 신령한 것이 어찌 오행의 리를 다 품수하지 못했겠는가?”⁶⁶⁾라고 반문하였다. 물론 인간도 사람과 사물이 똑같이 부여받은 오행의 기에 편전의 분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분수의 다소와 발용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괜찮으나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

61) 『南塘集』 권9, 『與崔成仲 別紙』, 1a. “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不可謂有氣質之性, 及其發也, 方有氣質之性. 道心即本然之性所發也, 人心即本性之由於耳目鼻口而發, 所謂氣質之性也.”

62) 『南塘集』 권9, 『答崔成仲 別紙』, 1b. “安得謂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 而已發後, 方有氣質之性乎? 蓋聞未發謂之性, 未聞以已發爲性也. 聞性發爲情, 而未聞聞性發又爲性也. 聞有體而後有用, 未聞無體而能有用也.”

63)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1b~2a. “然則所謂未發, 正是氣不用事時也. 夫所謂清濁粹駁者, 此時無情意無造作, 澹然純一, 亦善而已矣. 此處正好單指其不偏不倚四亭八當底本然之理也. 何必兼指其不用事之氣而爲言乎? 本然之外, 謂有氣質則可, 本然之外, 謂有氣質之性, 則是二性也. 其可乎? 此則德昭之論, 恐未爲得也.”

64) 『南塘集』 권9, 『與崔成仲別紙』, 3b. “禽獸稟得盡五常之性, 而以其梏於氣, 故不能全耳.”

65) 『南塘集』 권9, 『答崔成仲 別紙』, 4a. “性是理墮氣中以後名, 則禽獸與人, 安能同其全乎? … 蓋其稟得時, 已梏於氣, 而不能稟其全耳, 非既稟之後, 却不能全也.”

66)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3b. “凡一草一木, 何莫非二五所造, 而況較靈於草木者, 寧有不盡稟五者之理哉? 右兩說, 則德昭之論, 恐未爲得也.”

여,⁶⁷⁾ 비록 기의 편전 때문에 성의 편전이나 성의 발용 여부가 다르긴 하지만 사람과 사물이 똑같이 오행의 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초목과 금수도 모두 오상의 성을 다 품수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렇듯이 이간은 1709년의 『여최성중』에서 훗날 호락논쟁의 2대 쟁점이 되는 미발의 문제와 인물성의 문제를 두고 한원진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편지를 계기로 그 두 가지 문제가 이간과 한원진 사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⁶⁸⁾ 따라서 한원진이 1708년 8월에 쓴 「답최성중 별지」와 이 글을 보고 이간이 1709년 초에 쓴 『여최성중(별지)』은 수암 문하에서 앞으로 전개될 심성 논쟁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4. 한원진의 반론

한원진은 최징후를 통해 이간의 『여최성중 별지』를 본 후⁷⁰⁾ 이간의 견해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여기에는 이간이 『여최성중 별지』에서 다룬 문제들, 즉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는 물론이고, 도심이 리에 적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의 문제, 충막무집과 동정(動靜)·비은(費隱)의 관계 문제, 사덕과 오행의 관계 및 사시 순환의 비유 문제, 인물성동이의 문제, 호연지기의 문제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 가운데 훗날 심성 논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미발일 때 기질지성의 문제와 인물성동이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첫째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에 대한 논의이다.⁷¹⁾ 앞서서도 살핀 것처럼, 이간은

67)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3ab. “第四段, 禽獸云云, 盖人物均受五行之氣, 而偏全煞有分數. 今論其分數多少, (分數多少, 本朱子語), 發用與否(發用與否, 本程子語), 則可, 於其五者之中, 謂一有而一無, 則不可.”

68) 재미있는 것은 이간이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 인의예지의 발출 문제, 그리고 호연지기의 문제를 자신과 한원진 사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을 3가지로 꼽았다는 것이다.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4b. “但未發時, 必別言氣質之性, 四性發用時, 又必言三者各保間架, 而一性獨出, 並此人人有浩然之氣, 此三說, 則恐非一言議之失也.”

69) 이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김용현, 「외암 이간의 사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아산의 유학자들』(지영사, 2007) 참조.

70)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0b. “李公舉別紙, 深荷轉示.”

71) 『南塘集』 권28, 「李公舉上師門書辨」, 28b. “大抵此論, 本起於門下諸人私相講說, 而其題目, 則乃未發前氣質之性有無也. 愚以爲未發之性, 亦在氣中, 兼氣言之, 則是爲氣質之性. 公舉以爲未發之前, 氣不

단지(單指)와 겸지(兼指)에 따라 미발·기발지성의 구분이 있다는 한원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미발일 때는 기가 작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기가 맑고 순선하므로 기를 겸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발일 때 기질지성이 없다는 뜻인데, 이는 ‘기가 작용할 때 그 기를 겸하여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인간이 논한 기질지성은 성이 아니라 정을 논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였다.⁷²⁾ 한원진의 관점에서 보면, 기가 작용하면 성이 이미 정으로 발한 것이므로 아무리 성과 기를 겸하더라도 기질지성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처럼 미발일 때 본연지성이고 이발일 때 기질지성이라고 하면, 성을 체와 용 두 개로 쪼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⁷³⁾ 한원진이 이이와 송시열의 언급을 인용하여, 미발은 성이고 이발은 정이며, 단지하면 본연지성이고 겸지하면 기질지성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원진 역시 미발일 때 기가 작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성의 본체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기질에 상관없이 바르고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바르고 순수한 리만을 가리켜 성선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때에도 만약 편전수박의 기질을 겸하여 말하면 성의 본체가 아니라 기질지성이라는 것이 한원진의 주장이다.⁷⁴⁾ 인간의 주장대로 미발일 때 성과 기를 겸해 말할 수 없다면 기 밖에 리가 있고 리 밖에 기가 있어 리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그 비판의 주된 논리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발일 때도 청탁수박의 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질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⁷⁵⁾ 한원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미발성선(未發性善)’ 네 글자에 얽매어 미발일 때 본연지성만을 인정했고, 결국 정을 성으로 오인하여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로 가르는 잘못을 범했다고 하여, 인간이 범한

用事，不用事之氣，何必兼指而謂有氣質之性乎云云。此其所爭之始也。兩家文字俱在，烏可誣也？”

72)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1a. “第一段所論氣質之性，其辨亦摯矣。而要其大致宗旨，則不過以所謂情者當之而已也。然以先儒舊說格之，則殊未見其必然也。”

73) 한원진은 인간의 기질지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2a. “今既以氣質之性爲情，而本然之性，又不可不謂之未發之體，則是本然之性爲體，氣質之性爲用，一前一後，一此一，而地頭階級，迥然有截矣。是則公舉所謂二性者也，其可乎？”

74)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2b~13a. “未發之際，氣不用事，故性之本體，渾然自若，氣雖偏而理自正，質雖駁而理自純。於是單指其理之正且純者，而謂之性善，是不但氣質之偏駁者，不能損其善也，其全粹者，亦不得以益其善也。子思所謂未發之中，孟子所謂性善之性，皆指此也。若於此兼其偏全粹駁之氣質而言，則所謂氣質之性，而非復性之本體也。”

75)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3a. “若於此不可復兼性與氣質而言，則是氣外有理，理外有氣，而理氣判爲二物矣。其錯果如何哉？”

잘못의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하였다.⁷⁶⁾

두 번째는 인물성동이의 문제이다. 한원진은 최징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리를 논하면 사람과 금수가 같으나 기를 논하면 금수는 온전할 수 없고 사람만이 온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과 사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성은 리가 기에 내재한 이후를 지칭하므로 당연히 기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사물의 성이 사람의 성과 달리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⁷⁷⁾ 반면에 이간은 “사람과 사물이 오행의 기를 똑같이 받았으나 그것의 편전에는 분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금수가 오상을 품수하지 못했다는 한원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오행의 기를 받았기 때문에 오행의 리인 오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수했다는 것이 이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부여받은 오행의 기에 편전의 분수가 있다는 것은 분수의 다소와 발용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오상을 품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⁸⁾

이에 대해 한원진은 인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리의 측면에서 말하면 인간과 사물의 성은 온전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의 측면에서 말하면 인성은 온전하고 물성은 온전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였다.⁷⁹⁾ 더 진전된 논의가 있다면, 주희와 이이의 언급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보강한 점이다. 예를 들어 “만물의 일원(一原)을 논하면 리는 같으나 기는 다르고, 만물의 이체(異體)를 보면 기는 오히려 가까우나 리는 절대로 같지 않다”⁸⁰⁾는 주희의 언급이나 “만물은 성의 경우에 온전한 덕을 품수할 수 없다”⁸¹⁾는 율곡의 언급을 인용한 것이 그것이다. 한원진은 이

76)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3a. “公舉只將未發性善四字, 句斷道理, 而於此曲折精微處, 不復肯察. 故其說遂至於認情爲性, 而截性爲二矣. 恐不可不更思也.”

77) 『南塘集』 권9, 『與崔成仲別紙』, 3b~4a. “論理則人與禽獸同矣, 論氣則禽獸不能全, 而人獨全矣. 性是理隨氣中以後名, 則禽獸與人, 安能同其全乎?”

78)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3a. “蓋人物均受五行之氣, 而偏全煞有分數. 今論其分數多少, (分數多少, 本朱子語) 發用與否, (發用與否, 本程子語) 則可, 於其五者之中, 謂一有而一無, 則不可. 凡一草一木, 何莫非二五所造, 而況較靈於草木者, 寧有不盡稟五者之理哉? 右兩說, 則德昭之論, 恐未爲得也.”

79) 『南塘集』 권9, 『答崔成仲』, 19b~20a. “第四段所論, 以爲人物均受氣, 故草木禽獸, 亦皆盡稟五常之性者, 反復思之, 終未達其指, 殊用惶愧. 第愚所見, 以理言之, 則人物之性, 無不全矣, 以氣言之, 則人性全, 而物性不能全矣.”

80) 『南塘集』 권9, 『答崔成仲』, 20a. “朱子曰, 論萬物之一原, 則理同而氣異, 觀萬物之異體, 則氣猶相近, 而理絕不同.” 사실 일원·이체의 관점은 이간이 자신의 인물성동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간은 일원·이체의 관점 중에서 일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원진은 이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서로 배치된다.

81) 『南塘集』 권9, 『答崔成仲』, 20a. “栗谷先生曰, 天地之性, 人與物一也. 又曰, 萬物則性不能稟全德.”

러한 논거에 의거해서 “만약 기의 측면에서 초목금수가 모두 인의예지의 덕을 품부 받아 사람과 동일하다면, 주자는 ‘왜 리는 절대로 같지 않다’고 했고, 율곡은 ‘왜 사물은 성의 경우에 이 온전한 덕을 품수할 수 없다’고 했겠느냐”⁸²⁾는 주장을 펼쳤다. 한원진도 사물이 오행의 기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논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도입한 개념이 기의 혼탁이다. “만물이 모두 똑같이 오행의 기를 받았지만 사물이 받은 것은 매우 혼탁하므로 그 리도 단지 혼탁한 리를 얻었을 뿐”이며, 따라서 사물이 얻은 것은 사람이 얻은 인의예지의 순수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⁸³⁾

한원진은 같은 해(1709) 11월에 다시 최징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의 『별지』에서 한원진이 기질과 지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견이 없어 다행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⁸⁴⁾ 이 무렵 최징후가 미발일 때 기질지성 유무의 문제에 대해서 한원진의 견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인물성동이의 문제만큼은 두 사람이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고,⁸⁵⁾ 실제로 한원진은 이 『별지』에서 인물성동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최징후의 견해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⁸⁶⁾ 그러나 1711년의 『여취성중 별지(신묘 4월)』를 보면 한원진과 최징후가 세부적인 논의에서는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인물성동론자들을 비판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다.⁸⁷⁾ 한원진이 그 이듬해(1712) 4월에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한원진이 금수의 오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간·한홍조·현상벽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에 대해 최징후의 생각을 묻고 있는데, 이는 최징후가 인물성이론의 관점을 자신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⁸⁸⁾ 1709년 11월 이후 어느 시점에서 최징후가 인물성이론으로 견해를

82) 『南塘集』 권9, 「答崔成仲」, 20ab. “若就氣上看, 而草木禽獸, 皆稟盡仁義禮智之德, 而與人一同, 則朱子何以日理絕不同, 栗翁何以日物不能稟全德乎?”

83) 『南塘集』 권9, 「答崔成仲」, 20b. “萬物雖皆均受五行之氣, 物之所受, 極其昏濁, 則其理亦只得爲昏濁之理而已矣, 豈可以此, 而與論於仁義禮智之粹然者哉?”

84) 『南塘集』 권9, 「與崔成仲 別紙」, 13a. “氣質知覺之論, 既無異同, 甚幸.”

85) 『南塘集』 권9, 「與崔成仲 別紙」, 13a. “五性界分人物之性之說, 乍合乍離.”

86) 이 편지에는 「중용장구」 수장을 인물성이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등장한다. 『南塘集』 권9, 「與崔成仲 別紙」, 13a.

87) 『南塘集』 권8, 「與崔成仲 別紙」, 16b~17a. “禽獸五常之說, 主之者甚多, 皆自以爲俟百世不惑, 則其見之蔽, 可謂甚矣. 雖以老兄博識高論, 極言而明辨之, 猶不能取服, 則願愚之寡見淺識, 又何足以措一辭於其間哉? 此論起於吾黨而終若不合, 則不但講說異指, 辯競可憫, 將使人獸無別, 性善不明, 而爲道學之害也審矣.”

88) 이 편지에서 한원진은 「맹자」 「생지위성」 장 주석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이 다르다면서, 이간, 한홍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⁸⁹⁾ 이는 이간이 1712년에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물성론을 논하면서 한원진과 최징후를 나란히 비판한 것에서도 거듭 확인된다.⁹⁰⁾

5. 권상하의 논변 개입

1) 권상하의 논변 개입과 한원진 학설지지

호서 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된 이론 논쟁에서 중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 호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호학의 종장 권상하이다.⁹¹⁾ 이간과 한원진을 비롯해 수암 문하의 제자들은 서로 그들의 스승에게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썼다. 논쟁 초기인 1708년에 한원진과 최징후가 논쟁을 벌이다 각자 권상하에게 질의를 한 것이 한 예이다.⁹²⁾ 한원진은 1710년에도 최징후와 한홍조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편지를 권상하에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간의 견해를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⁹³⁾ 이간도 1709년에 권상하에게 편지를 보내 한원진의 충막무집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으며,⁹⁴⁾ 1711년에는 인물성과 미발에 대한 한원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의 견해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⁹⁵⁾

여러 제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권상하는 미발일 때에도 기질의 청탁수

조, 현상벽의 해석을 소개하였다. 이는 이들이 인물성동이론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간과 현상벽은 물론 한홍조 역시 인물성동론의 입장에 섰다. 『南塘集』 권8, 『與崔成仲 別紙』, 25b~26a.

89) 최징후가 1710년 11월에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금수는 오상의 성을 다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니 더욱 분명하게 깨닫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710년경에 인물성동론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된다. 『寒水齋集』 권13, 『答崔成仲』, 2b~3a. “禽獸不能盡得五常之性, 看來尤覺分曉. 大抵人物之性異同, 只在理氣離合看. …”

90)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別紙』, 46a. “蓋性命, 元是一實而二名者, 而今德昭成仲, 因名而各求二物, 此一誤也.”;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別紙』, 47ab. “德昭成仲曰, …” 이간은 한원진에게 보낸 「답한덕소별지」(1712)에서 한원진의 「오상설」, 최성중에게 보낸 편지, 황종하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여기서 그는 황종하와 김석여의 견해를 옹호하였다.

91) 심성설을 둘러싸고 권상하와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의는 김용현, 「권상하의 이기심성론과 사상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45(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참조.

92) 『寒水齋集』 권13, 『答崔成仲』, 1b.; 『南塘集』 권7, 『上師門』, 2b~4a.

93) 『南塘集』 권7, 『上師門』 4b.

94)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19ab.

95)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別紙』, 32a.

박이 존재하고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론으로 확립함으로써 한원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를 들어 1708년에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미발의 성을 어찌 기질을 떼어 놓고 본연만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여 최징후의 견해가 잘못되었고 비판하였다.⁹⁶⁾ 미발일 때에도 비록 작용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기질이 존재하고 그 기질의 청탁수박을 가리켜 선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⁹⁷⁾ 1710년에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줄곧 동론을 견지했던 최징후가 분간(分看)·합간(合看)의 논리를 적용하여 인물성이론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뜻과 부합한다고 칭찬한 후, 최징후의 분간·합간의 논리를 매우 좋다고 한 한원진의 언급이 바꿀 수 없는 정론이라고 평가하였다.⁹⁸⁾ 권상하는 또 1710년에 한원진이 최징후·한홍조·이간의 견해를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판한 편지를 보내오자, 그에게 보낸 답장에서 “(한원진이) 논한 여러 설들의 대의가 나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고 답변하였다.⁹⁹⁾ 권상하가 한원진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⁰⁾

반면에 이간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권상하가 심성 논쟁과 관련하여 이간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1712년 7월에 쓴 「답이공거답李公擧」¹⁰¹⁾이다. 이 글에서 권상하는 인물성론과 미발론 모두에서 이간의 견해를 물리치고 한원진의 견해에 동조하였다.¹⁰²⁾ 특히 한원진의 미발설에 대해서 “그의 뜻은 대개 태어난 처음에 곧 기질지성이 있어 청탁수박이 갖가지로 다르니 그 본령의 미악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발한 뒤에 숙특(淑慝)의 종자(種子)가 된다는 것이지, 아직 사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에도 악념이 항상 마음에 있다는 말이 아니

96) 『寒水齋集』 권13, 『答崔成仲』, 1b.

97) 『寒水齋集』 권12, 『答韓德昭』, 8b. “古人言善惡, 皆以感動形見者言之, 則未發之前, 難下善惡字. 然氣之清濁粹駁, 有萬不齊, 若只指其清濁粹駁, 而謂之善惡, 則雖言善惡, 亦無妨矣.”

98) 『寒水齋集』 권13, 『答崔成仲』, 3a. “高見與鄙意正相符合, 而分看合看云云, 尤得其要旨. 德昭所謂恰好者, 不可易也.”

99) 『寒水齋集』 권12, 『答韓德昭』, 7b. “所論諸說大意, 與鄙見無所參差.”

100) 권상하는 젊은 시절부터 인물성이 다르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미발론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가 1693년과 1695년에 박광일朴光一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보면, 그의 미발론은 “미발은 본연의 성이고 불선의 짝이 없다”로 정리되는데, 이는 오히려 이간의 미발설과 유사하다.(『寒水齋集』 권10, 『答朴士元』, 2ab; 『寒水齋集』 권10, 『答朴士元』, 5b~6a.) 권상하의 초기 미발론에 대해서는 김용원, 『권상하의 이기심성론과 사상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45(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참조.

101) 공거(公擧)는 이간의 자이다.

102) 『寒水齋集』 권13, 『答李公擧』, 21b~22a. “今來示提說偏全字非一, 而還又言物亦盡具五常, 此愚之未能瑩然者也. …”

었다”면서, 그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한 후 “덕소의 견해도 근거가 있으니 아무리 엄하게 배척하여도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변호하였다.¹⁰³⁾ 두 달 후인 9월의 편지에서도 “덕소가 종자를 말한 것이 무슨 병통이 있기에 것처럼 꾸짖는가?”라고 하여 이간의 한원진 비판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¹⁰⁴⁾

이처럼 권상하는 문학생들의 심성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하였다. 실제로 이간의 증언에 따르면, 권상하는 윤희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이견을 제기하자 소견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다.¹⁰⁵⁾ 게다가 권상하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한원진의 견해가 옳다고 찬명하기도 하였다. 한원진의 전언에 따르면, 권상하는 이간의 편지가 배달되었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한원진의 말을 의심하므로 한원진을 위해 상세하게 변론했고, 그러자 모두들 의심을 풀었다는 사실을 한원진을 비롯해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기도 하였다.¹⁰⁶⁾

2) 권상하의 영향력과 이간의 반발

이후에도 권상하는 이간의 학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1718년에 쓴 「논성설(論性說)」에서는 이간의 이른바 천군주재설(天君主宰說)을 이십이성설(二心二性說)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간은 미발일 때 마음의 본체가 순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설명 방식을 제기했는데, 그 최종적인 형태가 천군주재설이다. 천군, 즉 명덕이 주재하면 방촌에 있던 혈기, 즉 기질이 몸으로 몰려나므로 방촌이 맑고 밝은 허명(虛明)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그것의 주된 내용이다.¹⁰⁷⁾ 한마디로 천군이 주재할 때가 진정한 미발이고, 이때의 마음은 허명할 뿐 청탁의 기질이 없기 때문에 순선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권상하는 본연지심과 본연지성을 방촌에 두고 기질지심과 기질지성을 몸에 두었다면서, 이는 마음을 둘로 나누고 성을 둘로 나누는 이십이성설이라고 비판하였다.¹⁰⁸⁾ 그리고는 “이간이 스스로를 옳다고 여겨 자기 뜻

103) 『寒水齋集』 권13, 「答李公舉」, 22a.

104) 『寒水齋集』 권13, 「答李公舉」, 22b. “然則德昭之種子云云, 有何所病, 而呵叱如彼也.

105)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別紙」, 47a. “晦甫進拜時, 提起此說, 則先生以所見之不進, 頗加警策云.”

106) 『南塘集』 권10, 「答李公舉」, 17ab.

107) 『巍巖遺稿』 권12, 「未發辨」, 26b, “明德本體, 則聖凡同得, 而血氣清濁, 則聖凡異矣. 明德即天君也, 血氣即氣質也. 天君主宰, 則血氣退聽於百體, 而方寸虛明, 此大本所在, 而子思所謂未發也. 天君不幸, 則血氣用事於方寸, 而清濁不齊, 此善惡所混, 而德昭所謂未發也.”

만 고집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못되는 것을 즐기니, 참으로 애석하다”고 결론지었다.¹⁰⁹⁾

이간도 권상하의 입장 표명이 제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이간은 1712년에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오면 사방의 학자들이 그것을 확정된 이론으로 여긴다”고 전제하고, “후생들의 생각 없는 견해를 우연히 인정하시고 만년의 대본에 도리어 확고하고 올바른 정론이 없다면 후생들의 불행이 어떠하겠습니까?”¹¹⁰⁾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곧바로 정론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큰 근본인 선생님께서 확고한 정견 없이 후생들의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어 양웅(揚雄)의 설을 따른다는 비판인 것이다.¹¹¹⁾

물론 다수의 교우들은 스승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간의 태도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1713년에 있었던 이간의 증언은 당시 수암 문하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증언에 따르면, 수암 문하의 동료들은 이간에 대해서 “선생님과 맞서서 이기려고 한다”든가, “사나운 기세와 단호한 말을 오만하게 남에게 하니, 이 헛된 교만만으로도 이미 망치기에 충분하다”면서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¹¹²⁾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들은 이간은 “사우들의 여론에 공통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소문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여 몸 둘 곳이 없었다”고 하여, 한 집 단 안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뇌를 토로하였다.¹¹³⁾ 동료

108) 『寒水齋集』 권21, 『論性說』, 9ab. “近聞公舉以爲心與氣質有辨, 以虛靈知覺貯於方寸之內者, 爲本然之心, 而是心具本然之性, 血氣清濁充於百體之中者, 爲氣質之心, 而是心具氣質之性. 然則本然氣質, 分爲二性, 各居一處, 而虛靈知覺此心之外, 又有所謂心與性也. 此一誤也. …”

109) 『寒水齋集』 권21, 『論性說』, 9b. “此三說, 經傳之所不槩見, 儒者之所未嘗道, 而公舉自以爲是, 執迷好勝, 甘自誤了, 良可惜也.”

110) 『巍巖遺稿』 권4, 『上遂菴先生 別紙』, 41b. “卽今先生, 非義精仁熟道成德尊之日乎, 名理一出, 四方學者, 視爲定論, 而偶然開可於後生不思之見, 晚年大本, 却無明淨的確之論, 則其爲後生之不幸也, 爲如何哉? 此小子有時寤言明發而不寐者也.”

111) 『巍巖遺稿』 권7, 『答韓德昭 別紙』, 14b. “卽今函丈非義精仁熟道成德尊之日乎, 名理一出, 四方學者, 視爲定論, 而偶然被誤於後生不思之論, 晚年大本, 却從揚氏之說, 則其爲吾黨之不幸者, 爲如何哉.”

112) 훗날 윤봉구는 “이간의 평소 글쓰기와 말하기가 거칠고 겸손의 뜻이 없어 스승님과 주고받을 때조차도 헤아림이 부족했다”면서, “이 때문에 문하의 동료들 사이에 매번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屏溪集』 권19, 『與李正以』, 36a. “先丈平日筆舌尙氣, 不欲低垂, 雖往復於師門者, 不無欠商量者, 是以同門儕友, 每有過情之語.”

113)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 6ab. “向來流聞, 有所云云, 而意不過不知之人, 塗聽而塗說矣. 比有親友書尺, 紛然而至, 以爲江門士友, 咸謂此物與老師, 較角爲務勝, 或謂厲氣快語, 自恃加人, 只此虛驕, 已足以敗之云云. 因此方知士友輿議, 自有公論, 聞之, 毛骨俱竦, 置身無所矣.”

들 사이의 수평적인 학문 논쟁이 권상하가 개입하면서 점차 수직적인 논쟁으로 경직화 되어 갔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경직된 상황은 이간이 한원진의 오상설에 대한 변론을 해놓고도 시의가 두려워 한원진에게 보내지 못하고, 겨우 민을 만난 최징후에게 보내면서 주변 사람의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¹¹⁴⁾

이간이 1714년부터는 권상하에게 미발론과 인물성론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다만 이간의 기록에 의하면, 1716년에 이간이 몇 명의 친구들과 권상하를 만난 자리에서 천명지성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고, 이 때 이간은 권상하가 1712년에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자의 성론(性論)을 근거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기질지성으로 간주했다면서 그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간은 이 날의 일화를 수년이 지난 후인 1722년에 송유원(宋有源, 1671~1747)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권상하는 이 날 이간의 공박에 당혹해하면서 즉답을 회피했다고 한다.¹¹⁵⁾ 이간은 이 일화의 말미에 “선생님의 걸출한 식견으로도 또 성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끝내 백세의 정론을 잊지 못하셨으니, 이 어찌 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자신의 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¹¹⁶⁾

이간은 1721년에 「사설(師說) 상」과 「사설 하」를 지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학문 태도를 논하였다. 「사설 상」은 이른바 윤증(尹拯, 1629~1714)의 배사(背師)를 비판한 것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은혜와 의리는 어떤

114) 『巍巖遺稿』 권7, 「與崔成仲仁仲 安厚」, 8ab. 수암 문하의 경직화는 한원진이 한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원진은 1711년 4월에 최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금수 오상의 설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모두 스스로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된 것이 없다고 여기니 그 견해가 가리운 것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이 의론이 우리 당에서 일어나 끝내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면 강설이 가리킨 것이 달라져 서로 변론을 다투는 것이 민망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사람과 금수를 분별하고 성선을 밝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도학에 해가 됨이 심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 이때 한원진은 금수의 오상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4가지로 분류하고, 한홍조·황중하·김석여·윤훈·이간을 꼽았다. 이 다섯 사람에다 최징후를 보태면 이 시기까지도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南塘集』 권8, 「與崔成仲 別紙」, 16b~17a.

115) 『巍巖遺稿』 권10, 「與宋務觀」, 35b~37a. “丙申夏, 此與晦甫及二三士友, 同謁於先師, 則先師首言曰, 我何嘗以子思所謂天命之性, 作氣質之性乎? 不佞進曰, 先生之見, 本不如此乎? … 先師沉思良久曰, 公舉從前輒覓不可答底話頭爲問, 今此話頭, 我亦不能答矣. … ”

116) 『巍巖遺稿』 권10, 「與宋務觀」, 37a. “惜乎, 以退陶純深之學, 於理氣之源, 終未了一大公案, 以先師宏傑之識, 又於性命之實, 竟未承百世定論, 此豈非命也耶?”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¹¹⁷⁾ 이는 자신과 권상하의 관계가 윤중과 송시열의 관계에 비견되는 것을 우려해서 쓴 글로 짐작된다. 반면에 「사설 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경직된 풍토를 비판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이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승이 온갖 선(善)을 다 갖추고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승을) 범한다’는 한 마디 말은 충직한 간언을 막는 큰 장벽이 되어 결국 (스승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 심해진다. 그 결과 한번 스승의 자리에 앉으면 평생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는 날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천하의 이치이겠는가? … 스승의 도가 융성하면서도 그 제자가 말을 다하지 못하는 이치는 없었다.”¹¹⁸⁾

적어도 이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암 문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용인하지 않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사설 하」는 수암 문하의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학문 풍토,¹¹⁹⁾ 나아가 권상하의 완고한 학문 태도를 지적한 글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¹²⁰⁾ 이 글이 사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이간은 권상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생각을 물었다.¹²¹⁾ 이에 권상하는 “「사설 상·하」가 모두 지극한 이치가 있어 논의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설 하」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신과 이간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 벗일 뿐 애초부터 사제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¹²²⁾

117) 『巍巖遺稿』 권13, 「師說 上」, 13b~14a.

118) 『巍巖遺稿』 권13, 「師說 下」, 17a. “凡爲人師者, 萬善畢備, 無一過失, 則善矣. 如其不然, 則犯之一言, 爲杜塞忠諫之巨防, 而畢竟隱之則亦甚矣. 一主師席, 終身無聞過之日, 此豈天下之理也哉? … 寧有師道隆, 而其徒不得於盡言之理哉?”

119) 이간은 수암 문하의 강화 분위기에 대해 “걸핏하면 전언(前言)을 끌어들이고 번번이 선생님을 들먹인다”고 하였다. 『巍巖遺稿』 권5, 「上遂菴先生」, 27b.

120) 『巍巖遺稿』 권13, 「師說 下」, 18ab. “法門變故之後, 吾黨君子, 大加懲慙. … 其亦懲羹而吹薑矣. 此非吾黨之所深羞, 而亦宜所深反者乎?”

121) 『巍巖遺稿』 권5, 「上遂庵先生」, 41a.

122) 『寒水齋集』 권13, 「答李公舉」, 27b~28a. “師說上下篇, 俱是至理所存, 無以議爲. 但下段寓意, 或有指鄙人者否? 若然則儘是題外, 鄙人於座下, 年齒雖先, 而從前只以不挾長之友自居, 師之一字, 千萬不近.” 훗날(1761년) 윤봉구가 한 해 전에 간행된 『외암유고』를 보고, 이간의 아들 이이병(李頤柄)에게 「여송무관」(1722)을 비롯해 「상수암선생」(1719), 「답윤서응」, 「사설」 등 몇 편의 글을 의리에 맞지 않거나 불경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집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당시 수암 문하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屏溪集』 권19, 「與李正以」, 35b~38b. “先集閣在厓上, 亦久矣. 數月以師集勘

어찌됐든 수암 문하의 리기심성 논쟁은 스승인 권상하가 한원진의 견해를 지지함으로써 한원진의 학설이 점차 수암 문하의 주류 학설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간과 현상벽 등 일부가 그 주류 학설을 끝내 따르지 않았지만,¹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에도 기질의 청탁수박이 있어 선악의 종자가 된다는 설과 사물은 오상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과 다르다는 설이 수암 문하의 정론으로 굳어져 가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반면에 이간의 견해는 오히려 낙하(落下), 즉 서율·경기 지역의 학자들에게 흡수되었고 이간은 낙하의 학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18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율곡학과 내부의 심성 논쟁은 충청지역의 학자들의 호학과 서울 인근의 학자들의 낙학 사이에 대립 전선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호학은 이간과 치열한 논쟁 끝에 형성된 수암 문하의 주류 학설, 즉 한원진이 이끌고 권상하가 밀어주면서 확립된 주류학설을 가리킨다.

6. 맺음말

호학의 형성과 관련해서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언급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황·이이·김창협·이재(李穡, 1680년~1746) 등 모든 선생들이 낙학의 견해에 이의가 없었고 심지어 권상하 문하의 이간과 현상벽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오직 한원진만이 자신의 학설을 세워 권상하와 윤봉구를 끌어들이고 그 문도들에게 전함으로써 호학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하였다.¹²⁴⁾ 낙학이 이황과 이이를 계승

校之役, 心眼俱撓忙, 未暇閱盡, 乍看, 亦不無大家碍眼者. 既有愚見, 則不得不一聞之於高明, 而在今刊布之後者, 誠尤不幸之甚也. 最是與宋務觀第四書極不安. … 先集未改之前, 不宜留此. 茲因亭叔柁來附傳之, 改以送之則幸也.” 『의암유고』의 편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김성애, 『의암유고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한국고전번역원)과 김태년, 『의암유고』의 편찬 과정과 관본의 특징, 『한국문화』 45(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이 상세하다.

123) 권상하는 현상벽의 학설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최징후의 질문에 끝내 기존의 견해를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寒水齋集』 권13, 『答崔成仲六月』, 7b~8a.

124) 『頤齋亂藁』(제 5책) 권26, 무술년 7월 27일, 『記湖洛二學始末』, 236~237쪽. “斯我東賢, 自尤翁以前, 退栗諸老, 無異議也. 自尤翁以後, 農陶諸老, 無異議也. 雖以遂庵門徒言之, 巍岩及玄氏, 亦未始有別. 而惟彼韓氏, 執偏見立孤論, 以言乎心體, 則必曰是氣質也. 以言乎性之偏全, 則必曰是本然也. 以言乎明德, 則必曰是聖凡不同也. 以言乎五性, 則必曰是人物各殊也. 上而歸諸遂庵曰, 此乃吾師之說也, 亦尤翁相傳之說也. 旁而及諸屏溪, 下而傳諸其徒, 或脅或誑, 以疑以亂, 則雖以屏溪之白直慈祥, 亦不得不和於其間, 竟以理同性異四字, 爲晚暮歸宿之論, 嗚呼, 其不惜哉!” 『기호락이학시말記湖洛二學始

한 정통설이자 다수설인 반면에, 한원진이 주도한 호학은 이간과 현상벽이 수암 문하의 동료임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만큼 일부 학자들이 견지한 소수설이라는 의미이다. 낙학의 정맥을 계승한 황윤석의 견해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호학이 형성되는 데 한원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과 18세기 초반 이후 낙학이 학계를 주도함에 따라 호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원진은 24세(1705) 때에 『시동지설』을 썼고 25세(1706) 때에 『인심도심설』을 썼다. 이 시기에 한원진이 지녔던 학문적 관심사는 이이의 기발일도설에 기초해 정론을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수암 문하의 학자들 사이에서 리기심성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최징후·한홍호 등 동료들과 이론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간이 한원진의 견해를 비판함으로써 논쟁의 구도가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논쟁의 쟁점도 점차 미발론과 인물성동이론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암 문하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논쟁에서 주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그들의 스승인 권상하의 개입이다. 권상하는 미발론과 인물성론 모두에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심지어 이간에게는 “한원진이 미발일 때 선악의 종자가 있다고 말할 것이 무슨 병통이 있기에 그처럼 꾸짖는가?”라고 하여 그의 한원진 비판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후 호서 지역에서는 이간과 현상벽 등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인물성이론과 미발기질유선악론으로 기울어져 갔다. 이에 대해 이간은 “선생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오면 사방의 학자들이 그것을 확정된 이론으로 여긴다”면서 스승의 학설을 무조건 추종하는 학문 풍토를 비판했으나, 한원진의 견해가 수암 문하의 주류 학설, 즉 호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초반을 넘어서면서 심성 논쟁의 전선이 자연스럽게 호서의 학자들과 낙하의 학자들 사이에 형성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호락논쟁이다.

투고일 19.12.31

심사완료일 20.02.11

게재확정일 20.02.17

末』은 『願齋續稿』 권7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문석윤,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동과서, 2006), 21~25면이 상세하다.

■ 참고문헌

『南塘集』(민족문화추진회)

『農巖集』(민족문화추진회)

『梅山集』(민족문화추진회)

『屏溪集』(민족문화추진회)

『頤齋亂藁』(한국정신문화연구원)

『巍巖遺稿』(민족문화추진회)

『寒水齋集』(민족문화추진회)

김성애, 『외암유교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김용현, 『권상하의 이기심성론과 사상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4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김용현, 『외암 이간의 사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아산의 유학자들』, 지영사, 2007.

김태년, 『『외암유교』의 편찬 과정과 판본의 특징』,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문석윤, 『조선 후기 호락논변의 성립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문석윤,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동과서, 2006.

이애희, 『조선후기 인성과 물성에 대한 논쟁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전인식, 『이간과 한원진의 미발·오상 논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Debates on Human Mind and Nature of Things in Suam(遂菴) Kwon Sangha(權尙夏) School and the Formation of Hohak(湖學)

Kim, Yong-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debates between the disciples of Kwon Sangha(權尙夏)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to identify how mainstream thoughts of Kwon Sangha's School are formed in the process of the disputes. His many disciples, including Han Wonjin(韓元震) and Yi Gan(李柬), g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human mind and the nature of all things. At first the debates began as a free discussion among the disciples, but soon they each tried to be acknowledged by their teacher, Kwon Sangha, that his own theory was correct. As a result, the teacher opposed the opinions of Yi Gan and supported the views of Han Wonjin. Since then, most scholars in the Kwon Sangha school have followed Han Wonjin's arguments at the will of the teacher. Regarding this rigid academic climate, Yi Gan complained that there should be a free discussion even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However, Han Wonjin's argument, supported by the teacher, was widely recognized among Chungcheong local scholars. As a result, Hohak(湖學), which means the learning of Chungcheong area scholars, was established. Since then, Hohak has maintained its identity, arguing fiercely with Nakhak(洛學), which is the learning of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The two core theories of Hohak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tential of good and evil exists in the mind even when the mind is not working. Second, Since things do not have all five moral natures, the nature of things is different from the

* Hanyang University

human nature.

Keywords : Hohak, Kwon Sangha, Suam School, Han Wonjin, Yi Gan